

# 한전, 1조1천억 사우디·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 각 5천400억·6천억 규모 해외 매출 기대 글로벌 에너지 전환사업 리더 역할 확대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 2개국 연속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사우디 전력조달청(SPP C-Saudi Arabia Power Procurement Company)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Round 5 Sadawi 태양광 건설·운영 입찰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또한 미국 괌 전력청(Guam Power Authority)을 담당하는 유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ESS 연

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입찰사업에서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사우디 Round 5 사업은 2천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UAE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Masdar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 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 크기이며,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만 370만개에 달할 정도의

초대형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한전은 본 사업을 통해 한전 지분기준 약 5천400억원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주인 Masdar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추가적인 중동지역 재생 사업 개발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괌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은 132MW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84MW 4시간용(323MWh)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연계한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 생산된 전력 전량을 괌 전력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동서발전, 삼성물산과 Team Korea 컨소시엄을 구성해 괌 전력청 주관의 국제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수주했으며, 국내 사업주 지분 10

0%로 참여해 사업 성공 시 국부 창출의 극대화 가능하다.

본 사업은 괌 전력청과 향후 25년간 전력판매 계약을 체결해 한전 지분기준 약 6천억원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기업인 삼성물산이 전담해 추가적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미 괌에서 망길라오 태양광(60MW) 사업과 우쿠두 가스복합(198MW) 발전소를 운영중인 한전은 향후, 괌 발전설비 용량의 약 54%를 점유하게 돼 노후된 내연 발전 위주의 괌 전력시장에 청정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2개 사업 수주를 계기로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

대해 나갈 것이며, 국내 전력사업 이외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한전의 재무상황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급격히 팽창 중인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팀코리아 구성을 통해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로 한국의 전력산업(K-그리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e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써 그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임재만기자

## 가스안전공 광주본부 “쌀쌀한 단풍철 캠핑장 CO중독 조심하세요”

### 백양사가인야영장서 ‘난방용 가스기기’ 안전수칙 등 홍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는 최근 2024년 가스안전주간을 맞아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전남서부, 전남동부지사와 연합해 행락철(단풍철) 캠핑장 내 CO(일산화탄소)중독사고 예방홍보를 장성군 백양사가인야영장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캠핑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캠핑장 내 난방용 가스기기(온수매트, 가스난로)로 인한 CO중독사고 예방수칙과 캠핑시 가스안전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휴대용 가스

레인지 안전수칙 현수막을 캠핑장에 게시함으로써 캠핑객 가스사고 예방을 도모했다.

배승균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장은 “쌀쌀한 날씨가 다가온 만큼 캠핑장 이용시 CO중독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며 “캠핑장 내 가스안전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미디어아트쇼 라이트웨이브 ▶▶▶

# LIGHT WAVE

2024.11.29. - 12.3.

경기도 수원시 광고호수공원 신비한 물너미

<p><b>경기-흥 조선팝 콘서트</b> 11.30.(토) 17시~19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단광철 ADG7, 소은피쉬, 예결밴드</li> <li>미디어아트 퍼포먼스</li> </ul>	<p><b>미디어 콘텐츠 전시</b> 11.29.(금)~12.03.(화) 15시~20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공이 인터랙티브 체험</li> <li>미디어아트 전시</li> </ul>	<p><b>경기예술인 오픈스테이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29.(금) 18시~19시 &lt;빛&gt;나는 제즈 나이트</li> <li>12.01.(일) 15시~16시 &lt;홍&gt;폭발 밴드 스테이</li> <li>12.02.(화) 15시~16시 &lt;흥&gt;겨운 퍼포먼스 쇼</li> <li>12.03.(화) 18시~19시 &lt;물결&gt;속 록레식 하모니</li> </ul>
--	---	--

## 광주 소상공 “배달앱 상생안 진전 있다”

### 중개수수료율 9.8%→최대 2%...소상공 부담완화 법제화 촉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17일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 단체 등이 지난 14일 진행된 12차 상생협의체 결과에 대해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한걸음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대신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최대 2%까지 낮추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중개수수료 9.8%와 배달비 1천900~2천900원을 일괄 적용 중인데 앞으로는 각 플랫폼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 및 차등 배달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이번 결과는 지난 7월 19일 광주에서 시작된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선언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며,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연합회가 연대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에서 촉발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서명 운동 등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결집된 목소리가 상생방안 도입의 기폭제가 됐으며 광주시가 국정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공론화 시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의 도입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법제화로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더 나아가 공공배달앱에 배달비 지원을 우선 적용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성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번 결과가 조금이나마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의 사례가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에서 시작된 배민독립선언이 전국적 변화의 씨앗이 된 것 처럼 앞으로도 광주공공배달앱이 민간업의 유효적 경쟁사가 되고 상생방안의 법제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솔기자

## 지역 메디헬스케어 산업 육성 시민 건강관리 강화

### 광주TP-효령복지타운-전남대 업무협약...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건강관리서비스의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광주테크노파크는(이하 광주TP)는 17일 “지난 15일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의실에서 효령노인복지타운,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와 시민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3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TP에서 수행 중인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및 ‘차세대 스마트 멀티모달 데이터 적용 실증기반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지역 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메디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력 ▲지역 내 메디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메디헬스케어 관련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시민 건강 모니터링 활성화 및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라이프로그 기반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집 광주TP 원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보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메디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